

영원한 은막 스타 '별들의 고향'으로 가다

'국민배우' 신성일 별세

1960~70년대 청춘 스타 '맨발의 청춘' 등 주연만 500여편
지난해 화순 요양병원서 치료 받는 중에도 영화 열정 불태워

4일 81세 일기로 생을 마감한 '국민배우' 신성일은 마지막까지도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지난해 12월 광주일보와 만난 신성일은 차기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성일은 그가 직접 기획하고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던 영화 '소확행(가제)'을 이장호 감독과 배우 안성기, 박중훈 등과 작업하려 했었다.

지난해 여름 폐암 3기(말기) 진단을 받은 신성일은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온열고주파 치료를 가장 잘 하는 곳이라는 추천을 받아 오게 됐는데 건강이 많이 호전된 것 같다"고 말하며 1980년 광주의 한 여성과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성일은 한국 영화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한 '영원한 스타'였다. 빼어난 외모와 지적이고 반항적인 이미지는 1960~1970년대 기존 배우들과 차별화되며 그를 당대 최고 청춘스타로 만들었다.

◆한국의 제임스 딘-'맨발의 청춘'으로 스타덤

1937년 서울에서 출생 후 3일 만에 대구로 이주한 신성일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와 운동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한국배우전문학원에 들어갔고, 3000여 대의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당시 신상옥 감독이 세운 신필름 전속 연극자가 됐다. 신 감독 영화 '로맨스 뽀빠' (1960)로 데뷔한 신성일은 신필름을 나와 유현목 감독의 '아낌없이 주른다' (1962)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은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 (1964).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반항적인 이미지로 당대 최고 스타가 됐다. 청춘영화 대명사가 된 이 작품은 당시 서울에서만 약 36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이를 계기로 신성일과 엄앵란이 주연한 청춘 영화가 쏟아졌다.

신성일은 인기 최절정기인 그해 11월 워커히호텔에서 엄앵란과 결혼했다. 하객과 팬 4000 명의 인파가 몰린 두 사람의 '세기의 결혼식'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신성일은 나중에 외도와 사업실패 등으로 오랫동안 별거 상태로 지냈지만, 힘든 시기에는 서로 곁을 지키며 기능이 되었다.

신성일의 전성기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됐다. '떠날 때는 말 없이' (1964), '위험한 청춘' (1966), '불타는 청춘' (1966)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남자 배우로서는 독보적이었기에, 100여명 이상의 여배우가 신성일의 상대역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0~60년대 신성일 인기는 미국의 제임스 딘, 프랑스의 알랭 들롱과 비견될 정도였다.

◇주연만 500편-화순서 차기작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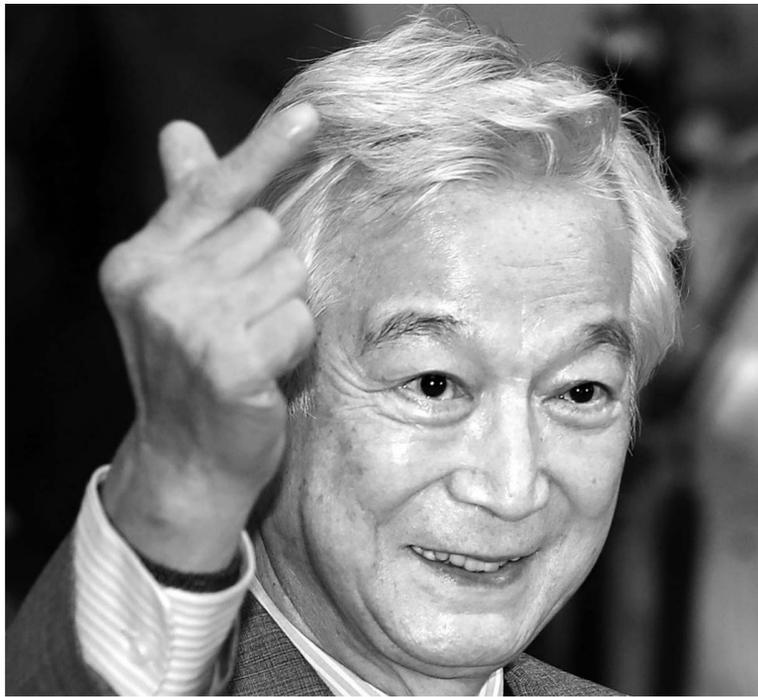
부산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이 지난해 '신성일 회고전'을 맞아 펴낸 책 '배우의 신화, 영원한 스타'에 따르면 1967년 한해에만 신성일이 주연한 영화 51편이 극장에 걸릴 정도였다. 1964년부터 1971년까지 8년간 한국영화 개봉작 1194편 중 324편에 그가 등장했다.

신성일은 무력과 좌절에 빠진 지식인을 연기한 '별들의 고향' (1974)을 비롯해 '겨울여자' (1977), '장남' (1984), '길소뜸' (1985) 등 70~80년대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했다. 2005년에는 '태풍'에 특별 출연했고, 2013년에는 '망각 속의 정사' (1993) 이후 20년 만에 영화 '아란문: 육방의 꽃' 주연을 맡으며 연기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만 해도 총 500편이 넘는다.

그가 배우 외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정치에도 눈을 돌린 신성일은 11대(1981), 15대(1996) 총선에서 거꾸 낙선한 끝에 2000년 16대 총선 때 대구 동구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경북 영천에 자신이 지은 한옥 '성일가' 일대에 박물관과 둘레길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쉼터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 고인의 마지막 바람은 끝내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했다.

한편 신성일의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엄수되며 공동 장례위원장은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후배 배우 안성기가, 고문은 신영균·김동호·김지미·윤일봉·김수용·남궁원·임권택·정진우·이두용·오석근·문희가 맡기로 했다. 영결식은 6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며, 오전 11시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다. 이후 장지인 경북 영천 선영에서 영면에 든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영원한 은막의 스타' 신성일이 4일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달 고인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맨발의 청춘' 신성일과 엄앵란



'별들의 고향'에서 열연하는 신성일



신성일의 빈소를 지키는 엄앵란. /연합뉴스

신성일 빈소 줄이는 조문객

최철암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다" 엄앵란 "순두부같은 여자 만나길"

4일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의 빈소에 그와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각계 인사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날 아침부터 50여 명의 취재진이 모여 들었고, 지상학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김국현 한국배우협회 이사장, 이혜룡 한국영화인원로회 이사장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고인의 장례절차를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 강창희 전 국회의장, 안성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문희 백상재단 이사장 등이 보낸 조화도 속속 도착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고인의 영정이 빈소에 옮겨졌으며, 정오에 엄앵란을 포함한 유족이 빈소에 입장했다.

취재진이 55년을 함께 한 고인을 떠나보낸 심정을 묻자 엄앵란은 "우리 남편은 저승에 가셔도 못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미있게 손잡고 구름 타고 그렇게 슬슬 전 세계 놀러 다나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첫 조문객인 원로배우 최철암은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다. 우리 토리의 연기자로서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고인의 명복을 받고 고인이 남긴 업적이 오랫동안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45 닥터 365 5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 (재) 50 UHD 한식의 마음 (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리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양로 MBC 다큐프라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Talk)(재)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2018 삼성화재 월드비독 마스터스 준결승1국 (한국전 8단: 탕웨이싱 9단)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25 헬로킴지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빠 모모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15 MBC 플러스특선 단짠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SK:두산)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05 끝까지 사랑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리랴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브24 55 제보자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20 MBC 뉴스데스크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지역MBC 공동기획 지역독립선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클래식 다이아리 50 코리아인 지도그래픽 플러스	35 비바 K리그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곤드레 밥과 황태 감자국〉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新삼국지 - 제1부 신이 된 영웅 관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30 EBS 뉴스
08:00 당동당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신선의 땅, 인간의 마음, 중국 무릉도원 1부〉
08:45 방귀대장 뽀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그해 가을 남해 1부 그뤼워서 바래길〉
09:00 뽀뽀뽀 뽀로로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딱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중차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48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60년생 귀한 손님이 찾아오리라. 72년생 전화위복이요, 세움지마에 비유할 만하다. 84년생 구분지어 놓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75	午 42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진행하는 바의 성취도가 무난할 것이다. 54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66년생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변수가 다채롭게 작용할 수 있다. 78년생 자신이 없다면 행하지 마라. 90년생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6, 99
丑 37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49년생 빛 좋은 개살구에 현혹 되면 곤란해진다. 61년생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해보라. 73년생 중차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으니 장고를 거듭하라. 85년생 생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1, 88	未 43년생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55년생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라. 67년생 백 마디의 말 보다 단 한 번의 실행이 설득력을 얻는다. 79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포용 해야만 할 시점에 놓여 있다. 91년생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95, 90
寅 38년생 얼음 녹듯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50년생 편이 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62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74년생 현실적인 실리가 더 낫다. 86년생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행운의 숫자 : 42, 28	申 44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56년생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으니 절반은 이룬 셈이다. 68년생 경청하라. 80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92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38, 82
卯 39년생 현안에 대해서만 몰두할 일이다. 51년생 승리대로 풀어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63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75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다. 87년생 겉으로는 그럴싸해도 속으로는 별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11, 45	酉 45년생 필요할 때에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리라. 57년생 길사와 연결 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69년생 나아간다면 목표를 이르게 될 것이다. 81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93년생 진행해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76
辰 40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낫다. 52년생 시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으니 장담은 금물이다. 76년생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규모와 부가적 이익이 달라지겠다. 88년생 생뿔뿔 단 김에 빼됐다. 행운의 숫자 : 89, 04	戌 34년생 풍량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라. 46년생 분명히 해줘야 뒤탈이 없다. 58년생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니 언행을 삼가라. 70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라. 82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0, 95
巳 41년생 전부가거나 전무의 상황이 예상된다. 53년생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65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게 마련이니 용기를 잃지 마라. 77년생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99, 87	亥 35년생 기법이 조처될 수 있는 문제이다. 47년생 무리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59년생 다양한 방책과 대비를 요한다. 71년생 정면으로 대응하여 승부를 내야만 후환이 없다. 83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심마리가 조성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9, 94